

집중호우 '농기계 침수피해' 대처방안 소개

농진청, "농기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침수됐다면 시동 걸지 말아야"… '농사로' 통해 열람 가능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가에서는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침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다. 보관 전에는 빗물과 습기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농기계에 묻은 불순물은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한다.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 방수포장 등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둔다.

농기계가 침수됐을 때 조치 없이 시동을 걸면 연소실 내 이물질로 엔진이 손상·누전, 합선으로 배선이 탈 수



지난해 진행된 침수 농업기계 긴급 수리 지원.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이므로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다. 한 뒤 물기가 마르면 기름칠하고 각종 우선 깨끗한 물로 씻어 오물을 제거 필터, 엔진·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

는 모두 빼내 새것으로 바꾼다.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하고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아준 후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를 칠한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했다면 새 배터리로 교체한다.

소음기는 물이 차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고장나사를 풀어 내부에 찬물과 이물질 제거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농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접속해 '농업자재'농업기계'계절별 관리정보'로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순회 수리 서비스를 이용해 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다.

/김욱기 기자

농어촌공 전복, 전북은행과

'쓰레기 줍기' 캠페인 실시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정문)는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기지저수지에서 전복은행과 함께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ESG캠페인 '쓰레기 줍기'는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동참을 위한 호숫길 쓰레기 줍기' 활동이며, 다양한 구성원이 ESG 사회 공헌 브랜드로 추진중인 캠페인이다.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복본부 및 전주완주임실지사 직원 50여명을 비롯해 전복은행 직원 30여명 등 총 80여명이 참여해 기지저수지 일대의 버려진 생활폐기물, 페비닐을 수거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전복본부는 앞으로도 환경정화 행사를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호숫길 보존에도 앞장서겠다. /김욱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복농협이 지난 7일 관촌면체육문화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 '농촌왕진버스'를 진행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임실 관촌에 '농촌왕진버스'가 왔어요"

전복농협·임실군 등, 관촌면체육문화센터서 진행

전복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지난 7일 관촌면체육문화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 '농촌왕진버스'를 진행했다.

임실군(군수 심민)과 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이 참여하는 가운데 관내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사단법인 햇살마루), 구강검진(아이오바이오), 검안·돋보기(대비치 수송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실시한 '농촌왕진버스'는 농업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고령·취약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민 군수는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고령 농업인들에게 의료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우리 임실군은 농촌 지역 활력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정철석 조합장은 "농촌왕진버스"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오수관촌농협은 지속적인 고령·취약농업인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케익 커팅식



한국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5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새올빌딩에서 열렸다.

전기안전공사 창립 50년 기념행사

박지현 사장 "반세기 도전의 역사에 이어 에너지 안전 이끄는 국민 기관으로 거듭" 다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5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본사 새올빌딩에서 열렸다.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 30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공사 창립 50주년 발자취 영상 상영과 유공자 표창, 우수사업소 포상, 공로패 수여, 기념 식수 순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공사의 반세기 역사를 담은 '전기 안전 50년사' 봉정 행사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책자는 3170여명의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담아낸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었다.

이날 행사에 박지현 사장과 배운준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발간 책자에 서명하고, 영구 보존할 전시함 안에 책을 놓아서 참석자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그 의미를 더했다.

박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온 우리의 지난 50년은 대한민국 산업화, 경제성장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라면서

"공사 선배 사우들의 헌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에도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974년 6월 7일 '한국전기보안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1975년 4월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50년 동안 국내 유일의 전기안전 전문 기관이자 국가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 자리매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6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 당시 본부를 포함해서 10개 지부와 5개 출장소, 100명의 직원으로 첫출발, 현재는 본사와 정읍에 인재개발원을 포함해 전국 60개 사업소 임직원 3,170여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변신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전복은행 노조, 창립 기념식 대신 봉사활동 나서

전복은행노동조합은 지난 5일 노조 창립 51주년을 기념하고 '가장 가까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금전달식 및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복은행노동조합은 노조창립 기념식을 실시하는 대신 변함없는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으며 정인호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간부 전원, 전복은행지역사랑사단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복은행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개소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기관인 민들레학교를 찾아 다양한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